



경북 의정활동

제 56호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열린의정구현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도록
화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들과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한 시책들을 연계 추진하여 경북발전의 좋은 기회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우수가 지나고 싹이 트고 동면하던 동물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다가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위대한 경북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5일 취임한 새정부는 국민을 섬기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선진일류 국가건설을 목표로 국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새 정부의 정책들과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한 시책들을 연계 추진하여 경북발전의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승마대회 등 국제대회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연구단체 구성과 업무연찬으로 도정 관심분야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국가 문화재를 비롯한 정부 청사에 화재가 일어난 바 있으며 최근 낙동강 폐놀 유입으로 수돗물 공급에 일부 차질을 빚은 바도 있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점검은 물론,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및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생필품 등 생계형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분야별 물가안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은 풍년농사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므로 영농준비를 잘하여 금년에도 농도 경북에 걸맞는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도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과 집행부가 제출한 안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정책대안이 있으면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함께 지적하는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여 경북도 발전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총선거에 대한 행정적인 준비와 도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홍보가 있기를 바라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구체화시키는 중요한 3월 한 달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4일

경상북도회의의장 李 相 千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제 220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20회 임시회는 2008년 2월 13일 11:00 본회의를 개회하여 2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5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2월 13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8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 휴회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행정 관리 일원화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채택하고, 지난 1월 31일자로 장대진 의원의 사퇴로 인하여 공석이 된 교육환경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박순열 의원을 교육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220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221회 임시회

- 경상북도의회 제221회 임시회는 2008년 3월 4일 11:00 본회의를 개회하여 3월 11일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4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4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전찬걸 의원, 이시하 의원, 이상용 의원)을 하였으며
-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박노옥 의원, 백영학 의원, 장병익 의원)을 하고 산회했다.
- 휴회기간인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도청이전 추진상황 보고 및 (주)코오롱유화 화재 진화수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 제6차 본회의를 3월 11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2월말 교원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등을 승인·의결하고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국제대학생스포츠포럼(FISU) 총회』에 참석하여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WJEF)』의 경북도 유치활동을 펼쳐, 성공적인 유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월 24일 도청강당에서 우수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제11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노사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들을 축하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월 23일 도청강당에서 유망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경북Pride상품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경북 Pride상품을 세계시장에서 으뜸이 되는 명품으로 육성하자고 역설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3월 6일 도청강당에서 가진 2008년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에 참석하여 FTA 등 농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미래 경북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농업전문 CEO로 정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2월 14일 『경도대학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하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젊은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3월 3일 『지역치안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최근 법질서 경시 풍조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경북을 구현하는데 다함께 노력키로 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3월 13일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가진 『의정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실용의 시대, 새로운 도의원 역할 모색과 효율적인 입법정책 능력을 배양하여 지방선진화를 도모하는데 앞장서자고 역설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1월 26일과 27일에 『일본 오사카도민회와 동경도민회 창립기념식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고국을 떠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교민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고향 경북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안순덕 부의장은 1월 18일 『경북 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출범식』에 참석하여 WTO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해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미래의 경북 농어업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농어업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의회 사무처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방안과 의정활동 중심의 의회 사무처 기구 개편, 의정활동 홍보물 개선**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울릉군지역 여객교통 및 에너지 공급 등 주민 생활경제현장 확인을 위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고 도서민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수송비 지원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독도경비대를 위문**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나눔공동체를 방문하여 근로작업현장을 둘러보고 장애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박순열)는 김천시 대광동 소재 (주)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유해물질 유출 오염실태 조사 및 피해자 위로, 피해지역 응급복구 독려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한·미 FTA비준과 한·EU와의 협상 진전 등 국제농업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경상북도 농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투자통상본부, 관광산업진흥본부, 문화체육국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상품 개발, 전통문화를 특화한 경북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에 대한 질의와 촉구를 하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상시개장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최근 승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도민의 안전과 문화재산의 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위하여 『**소방관서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건설도시방재국 및 소방본부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촉구를 하고 또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과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도 심의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김응규 위원장(김천)



박순범 부위원장(칠곡)



김만용 위원(의성)



김수용 위원(영천)



김영만 위원(군위)



박기진 위원(성주)



박병훈 위원(경주)



박진현 위원(영덕)



손진영 위원(영주)



이상태 위원(울릉)



이종원 위원(상주)



장두욱 위원(포항)



전찬길 위원(울진)



최윤희 위원(비례)



한혜련 위원(영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받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좌해준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도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3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건설을 위해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만큼 의원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해 줄 것과 아울러 의원들의

역동적인 입법정책 지원을 위하여 입법정책팀 및 자치연구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토록 주문하였다.

● 또한 의정활동 홍보물을 의원 개개인이 활용 홍보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 위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홍보물이 되도록 발간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발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의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이나 개별연구 공간이 없어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원상담 및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검토해 줄 것과 의회사무처의 기구를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와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Planning & Economy Committee



이현준 위원장(예천)



박진현 부위원장(영덕)



김수용 위원(영천)



나규택 위원(고령)



손덕임 위원(비례)



안순덕 위원(의성)



이상용 위원(영양)



이상태 위원(울릉)



정경구 위원(안동)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주민생활경제현장 점검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특히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는 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우리도에서도 신도청소재도시 건설, 동해안해양 개발, 경부운하 건설 등 경북의 성장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3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건설을 위한 도정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기획조정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연말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이번 송례문 화재 사고 등 국가기반에 대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도의 전반적인 기반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경제과학진흥본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과학진흥본부에서는 현재 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역량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동남권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국제 유가 100달러 시대 도래에 따라 세계는 지금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 발굴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는데, 우리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07년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 한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소방현장의 대응능력 강화와 긴급구조 구난체계 확립을 위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119 안전센터 5개소 및 119 구조대 2개소 등의 운영인력 71명의 증원과 지역주민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 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경북소방학교에 2급 응급 구조사 양성을 위한 교관인력 3명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 이밖에도 본격적인 봄철 관광시즌을 앞두고 여객 교통 및 에너지 공급실태 등 생활경제현장 점검을 위하여 울릉도를 방문하여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과 생필품 해상 수송비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본격적인 봄철 관광 성수기에 대비한 울릉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독도를 방문해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들과 독도주민 김성도씨 부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도를 사랑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독도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최근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갖는 것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푸른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이 살아 있는 울릉군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광 자원 개발과 함께 국내 최고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Administration, Health & Welfare Committee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이하 가다
25(금) 14:00 주최:경상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



이우경 위원장(경산)



손진영 부위원장(영주)



권영만 위원(봉화)



김숙향 위원(비례)



김응규 위원(김천)



박순범 위원(칠곡)



윤영식 위원(예천)



윤창욱 위원(구미)



이시하 위원(문경)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 무자년 새해 첫 임사회를 맞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업무계획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는

경상북도의 청렴도 순위가 2007년도에 12위에서 2위로 상승한 이유와 부패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 등에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정기 감사를 정례화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서는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중 전년도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이어서 자연환경연수원의 지역교류 및 해외생태교실 운영으로 중국 길림성과 연계한 백두산 생태탐사 교육의 예산이 참가자의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문제이며, 통상 국제교류를 하면 예산을 50:50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류연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 경도대학 업무보고에서는

신입생 모집현황에서 학과별 등록현황이 차이가 나는데 지방공무원 특채대학으로 지방행정전공, 소방방재전공은 등록률이 높은 반면에 경쟁력이 없는 학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경도대학의 등록금이 5% 인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도립대학과의 형평성은 문제가 없는지, 등록금 인상 시 신입생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하였다.



●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는

2009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경북도에서도 사회복지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복지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다.

이어서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입소정원은 60명인데 현재 35명으로 25병상이 남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위치가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입소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주문하고, 또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리인, 운전원이 꼭 필요한가? 조직의 효율성 및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하였다.

● 특히,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21세기 급증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이번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아직도 만연되어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재활 및 교육환경도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직업 활동 등의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단체 등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장애인 가족 면담, 복지시설 방문 등을 통하여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행정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이동권, 정보 접근성 등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위원회

Education & Environment Committee



박순열 위원장(청도)



전찬길 부위원장(울진)



김만용 위원(의성)



김영기 위원(청송)



백천봉 위원(구미)



송필각 위원(칠곡)



장세현 위원(포항)



채옥주 위원(비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환경행정 관리 일원화 촉구 등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교육환경 위원회(위원장 박순열)는

●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이밖에도 환경행정관리 일원화 촉구 결의안 채택 및 (주)코오롱유화 화재 진화수에 의한 수질 오염사고 피해 현장 방문,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유보 결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먼저 환경해양산림국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과의 15년간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교류 재개와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에 질의하고 교류 재개시 신중한 검토와 최근 독도 주변에 폐기물이 많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과 EEZ주변을 청정해역으로 관리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동해안 개발 사업이 연안중심

으로 지나치게 크고 그 종류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을 가려내어 집중·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교육청 소관 특정기관의 교장·교육장의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교육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의 인사난맥상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후 신정부 출범과 연계한 경북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농촌환경의 변화 속에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도 교육청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최근 포항에서 두발단속에 항의하여 제자가 스승을 고발한 사태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당부하였다.

● 또한 환경행정관리 일원화 촉구 결의안 채택은

최근 영천시 창신·청솔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에 있어 도는 1~2종을 시·군은 3~5종과 그 외의 소음·진동·악취 등을 관리하는 체제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행정관리 업무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환경행정관리 일원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은 월 1,912,500원으로 의정비 결정은 주민의견 설문조사, 의정활동 자료수집, 타 시·도의 의정비,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과 교육위원 회의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의정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학원의 단위시설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 설정 및 제한 등에 대하여 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학원·교습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육당사자인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상당부분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유보 결정하고, 의회차원의 최적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대표, 학원 및 교습소 등 이해당사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하였다.

● (주)코오롱유화 화재 진화수에 의한 수질 오염사고 피해 현장 방문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대광공단내 (주)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진화 과정에서 유출된 유해물질이 낙동강 지류인 대광천과 감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듬에 따라 교육환경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상황 파악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주)코오롱유화 김천공장을 방문하여 유해물질 유출 오염실태 조사 및 유해물질 유출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를 독려하고, 오염지역에서 채수한 하천수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위해성 여부를 검사케 하는 한편 구미시 구미해평광역정수장을 방문하여 생활용수 공급실태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2008년 3월 5일 교육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질오염사고 조치상황 보고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 대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밖에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2008년 2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 407명에게 지급할 명예 퇴직수당으로 소요재원 289억 2,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발행조건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 연리 7.27%로 금융기관의 증서차입 형태로서 상환재원의 전액을 국고부담 조건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임.

교육환경위원회는 지방채 발행 심사에서 관련 법령 규정의 부합 여부와 발행조건 준수 여부 등을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원리금 상환재원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기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등 절차적인 면이나 지방재정 부담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채 발행대상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농수산위원회

Agriculture & Fisheries Committee



방유봉 위원장(울진)



이종원 부위원장(상주)



김영만 위원(군위)



남종식 위원(청송)



박노옥 위원(봉화)



박명훈 위원(경주)



이용석 위원(구미)



이준호 위원(청도)



조동만 위원(영양)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경북농어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역량 결집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FTA/DDA 등 동시다발적인 농수축산물 개방압력에 대비한 경북농어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혜와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금 세계무역질서는 FTA/DDA 등 무역장벽 해소

기류에 따른 국가간 경쟁의 심화, 지속적인 고유가 행진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기후 및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과 사료가격 급등(Agflation),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자연재해 빈발 등의 경영 위험요인 증대로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농어업시장에도 예외 없는 악재임을 인식하고 경북 농어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발굴 추진 등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년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세심한 예산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 또는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필요시 중앙정부와 긴밀히 접촉하여 협조를 구하는 한편, 경북농어업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이 대책마련에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독려했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장기화 우려와 관련하여, 국제곡물가격과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우리 농축 산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지적하고, 식량 자급률 향상은 물론 대규모 친환경 조사료 생산 단지의 획기적 확대 조성과 유희지를 활용한 조사료 및 곡물사료 확보 등 다양한 대책 발구를 촉구하였다. 필요한 경우, 곡물 및 조사료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해외기지 건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지역에 경북사과원 조성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철저한 자료분석과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남북농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 해양개발과 연계한 풍요로운 어촌건설과 관련하여 환경 파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됨을 강조하고 깨끗한 바다조성과 어장가꾸기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생분해성 어구개발과 인공어초시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질의하고 아울러 연근해어선 구조 조정(감축)과 특정어구 사용금지구역 설정 등 어자원 보전대책에 공감을 표하고 어자원 감소에 따른 어민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첨단농법 및 우량종자 개발·생산 농가보급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례 답습적인 실적나열식의 업무추진 행태에서 탈피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을 기하고 돈이 되는 기술농업을 실현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는 적극적인 농가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개발된 우수 종자의 고급 브랜드화 노력과 국외유통 방지에 세심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풍요롭고 잘사는 경북 농촌건설에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통상문화위원회

Trade & Culture Committee



이상효 위원장(경주)



최윤희 부위원장(비례)



김종천 위원(영주)



방대선 위원(성주)



백영학 위원(김천)



이재철 위원(상주)



장경식 위원(포항)



정무웅 위원(울릉)



한혜련 위원(영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당면 현안사항 간담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효)는

● 무자년 새해 첫 임사회를 맞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투자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경북의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2007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업체 대상 시군별 상담실적 및 상담 이후 추진실적과 중동시장 토탈마케팅 박람회를 별도로 부스를 설치해서 추진하는 지와 참가결과에 대한 성과보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이 루마니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 등 주로 어떤 작물에 어떤 방식으로 진출할 계획

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통상,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광산업진흥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상품개발과 경북만의 특성을 살린 지역명품 관광상품의 적극적인 개발과 지역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뒷받침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 관광의 중심 허브역할을 담당할 관광 기반시설 개발 및 미래 관광패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원 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중앙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행정 추진을 위해 경북을 바탕으로 한 전문여행사 및 전담조직 육성, 10년 주기로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대한 자료 준비와 우리 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우수시책의 적극 개발을 촉구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조성과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성과지향적인 마케팅 추진 등을 주문하고

북부지역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펜션단지 유치를 위해 인근 시군간 경쟁이 치열한데 시군간 연계추진 등 도에서 조정역할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문화체육국 업무보고에서는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를 특화한 경북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지역문화컨설팅사업을 통한 운영방법 개선 및 우수 프로그램 개발

영상·디자인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인프라 구축과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과 유교문화권 사업 및 가야문화권 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2009 경북 민속문화의 해」 착실한 준비와 민속문화의 체계적 조사·발굴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종가·전통가옥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발굴·활용을 통한 관광 상품화하고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등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 강화

승레문 화재의 경우 대처능력 부족으로 큰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구조물 숙지, 단계별 매뉴얼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금년도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회기중 집행부의 주요 시책업무를 선정하여 그 추진상태를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점 도출 및 지역여론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시개장 관련 간담회에서는

4월부터 연중 개장 계획에 대해 수익성 여부와 재정자립 가능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문라이트(Moon Light) 레이저쇼 관련 비용문제 해결방안 강구와 외주 수익사업인 화석박물관 운영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지역 케이블방송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어린이 관람객의 유치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

Construction & Fire Defense Committee



황상조 위원장(경산)



박기진 부위원장(성주)



고우현 위원(문경)



김가홍 위원(영덕)



김영택 위원(구미)



박영화 위원(고령)



장길화 위원(비례)



장두욱 위원(포항)



장병익 위원(군위)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소방관서장 정책간담회 개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 무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국가사업의 조기 착공과 지역균형 개발을 촉구했다.

● 건설도시방재국 업무보고에서는

먼저 동해안 관광자원의 개발촉진과 경북 북동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울진공항의 조기 완공과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착공 등을 촉구하고 아울러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영일만항 배후산업 단지 조성 및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시행 사업의 조기착공을 거듭 주문하였다.

또한 영천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울릉경비행장 건설과 울릉 일주도로 유보구간의 조기 개설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및 예방위주의 방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질의하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구축으로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도민 안전 확보와 주민신고 체제 확립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그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던 것을 금년에는 소방본부장 업무보고 후 일선 16개 소방서장들에게 소방서별 특수시책이나 업무추진 방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져 소방서장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업무보고에서는 국보 1호인 승례문 전소와 관련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보 및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도내 문화재에 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목조건물 화재 진화방법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문화재에 대한 화재진압 시뮬레이션을 소방학교에 시범 설치하여 현장에 맞는 충분한 훈련을 시키도록 강조하였으며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하나 하나에 대한 소방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와 화재진화는 신속이 최고이므로 화재 신고시 중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가벼운 장비로 빠르게 출동하여 초기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음.

또한 영주 봉정사에는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데 초동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와 소방대기소 통폐합시 보경사,

대보 등은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책하고 기준을 재설정토록 촉구하였다.

● 한편, 소방관서장과의 정책간담회는

2월 15일 신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안전과 문화 재산의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선소방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하여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소방서장과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용소방대 임용의 경우 시지역은 도지사가 군지역은 군수가 임용토록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도지사로 일원화토록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 고성능 화학차를 추가로 구입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8회 도의회 개원 후 경상북도의 찾은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개선을 강력 촉구

» 백 천 봉 의원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백천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무자년 새해 첫 본회의 제22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기에 앞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8회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이루어진 경상북도의 인사와 관련하여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사가 있을 적마다 도에서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다,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는 등 인사의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인사를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사 전체에 대해서는 접어두고서라도 본의원이 속해 있는 교육환경위원회 관련된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 7월 7일 8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 것이 아직 1년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즉 20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의 저희 소관 위원회 환경해양산림국장은 정상수 국장, 윤정용 국장, 윤정길 국장, 석현하 국장, 김남일 국장 무려 다섯 명입니다. 전문위원도 황용대 전문위원, 김광호 전문위원, 정병철 전문위원 세 명째입니다.

2007년 작년 8월 29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 박순열 부위원장의 도정질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국장 세 분, 전문위원이 세 분, 겨우 이름만 알만 하면 바뀌었는데 너무 자주 이동이 된다는 박순열 부위원장 지적에 대해 김용대 행정부지사께서는 한 자리에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의 지속성과 의회의 뜻을 고려하여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이 있은 후 올 초 석현하 국장이 김남일 국장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20개월이 안 되어 5명의 국장을 바꾼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너무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환경해양산림국은 아무 것도 아니다, 있으나 마나 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정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인사가 이러한데도 과연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이고 적재적소에 배치한 잘된 인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8월 29일 본회의장 이 장소에서 답변하신 김용대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의 인사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리고 지사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나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지사께서 동의하셨듯이 행정의 지속성과 또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본의원은 많이 잘못되었다, 지나쳤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분명히 개선되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북교육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교육장 6개월 하고 이쪽 교육장으로 옮긴 것이 토털 다섯 건 있습니다.

지난 달 1월 28일 날 도청 강당에서 정부부지사로 계시던 이철우 부지사님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참석을 했고 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구미 출신 도의원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네 분 중에, 참 일 잘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2년 1개월 정도 근무하셨다고 하던데 2년 근무하시니까 참 잘 하셨다는 소리 들어요. 이번에 어제 부로 취임하신 김영일 부지사님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부지사 자리가 택호 갈아주고 앉았다가 이름 바꾸어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경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하고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도의회는 좋은 의견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지적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부운하 물류터미널 입지 선정을 위한 대구시·경북도 상생 방안 찾아야

» 나 규 택 의원

발언을 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난 2월 20일 220회 임시회의 시에 제가 발언 신청을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여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고령 출신 나규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21회 본회의의 마지막 날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에는 그토록 변화를 염원하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이명박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공약사업의 하나인 경부운하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하 건설은 물류비 절감, 관광·레저산업 발전은 물론,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 47개 터미널 중 제일 규모가 큰 것이 대구 내륙항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원래 구상이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건설 계획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에는 소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강 건너 맞은편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원에는 경부운하 최대의 여객터미널과 화물 터미널, 그리고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도 환경성 검토, 시민단체 여론 등의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야 비로소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부운하 최대의 물류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군 다산면 일원 예정 부지에 대단위 물류단지과 항구시설, 업무, 레저, 공원시설 등 새로운 시설을 갖춘 물류 운하도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대통령의 구상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대운하 터미널과 물류단지 선정이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동편 일원에 건설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구와 경북이 상생·공동발전하자는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로 대구시는 차제에 자제·자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대구·경북이 해야 할 일은 지역의 현안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 광역 경제권 구축, 대구·경북 경제통합 등 여러 부분에 걸쳐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이를 추진함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아전인수식 처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입지 선정에 있어서 대구시와 같이 독자적 행동으로 자기 구역으로 유치 운동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두루 살피고 이를 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지사님께 축구를 합니다. 대구의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행보의 문제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모든 사안에 걸쳐 대구광역시와의 협조와 동조, 견제의 관계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답변요지



2008년 3월 4일 제221회(임사회) 제1차 본회의

이 상 용 의원 기획경제위원회(영양)



질)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답)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광역단위의 자생력 배양을 통한 글로벌 경제력 확보를 위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발전시키는 광역경제권을 구상 발표하였으며, 경북과 대구는 대경권으로 설정하고 광역경제권 6대 발전전략으로는 ①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②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③광역경제권 기간인프라 확충, ④낙후지역의 新 발전지대로의 전환, ⑤수도권-지방 공동발전체제 형성, ⑥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음.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영향예측으로는 먼저 긍정적 영향은 대구경북경제통합 노력의 가속화와 결실 그리고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북부권의 新발전지대로 전환 등이며 부정적 영향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와 광역경제권 본부설치 등 추진체제와 관련한 지방자치권의 충돌을 생각해볼 수 있음.

우리 도의 대응전략으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시·도간 상호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선도와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하기 위해 타 시·도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하여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요구할 계획임.

질) 도내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화재예방대책과 군지역 소방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소방활동 등 농촌 지역의 화재예방 대책에 관하여

답) 도내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발생시 대책은 먼저 도내 1,741개소의 문화재 중 특정 소방대상물 612개소는 매년 1회 이상 소방·전기·가스·문화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발생시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옥외소화전 설치 권장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소방훈련으로 화재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사업의 시행의지와 예산확보 현황은 지난해 처음 방수시연한 농어촌 맞춤형소화전 설치사업의 예산 확보는 57,000천원으로 38개 마을에 시범 보급할 계획이며

소방지역대 통폐합 시행의지와 통폐합 현황은 2007. 12. 31 현재 117개의 소방지역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통폐합 추진 현황은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적 소방행정 수요의 특성을 감안하여 2007년 6월 3개대를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는 3월중에 의견을 수렴하여 4~5월중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임.

영양군의 소방지역대 통합후 119안전센터 설치계획은 먼저 영양군의 소방지역대는 입암, 일월, 수비, 청기, 청북, 석보 등 6개소이며, 소방공무원은 14명, 소방차량은 7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119지역대 통폐합 계획은 통합운영 2개소와 영양 119 안전센터 복구가 1개소임.

군지역 소방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내 현황 파악 및 화재 초동진압 등 문제점 발생 대비책은 소방공무원의 인사는 계급별 승진과 연고지 배치 등에 따른 인사요인으로 인하여 연간 12회 정도의 인사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위 이하의 하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는 제도적으로 연간 최소 8회 이상 실시할 수밖에 없음. 향후 소방위 이하의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소방 현장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비슷한 시기의 인사요인은 통합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음.

질) 단일 이사장제 개편 및 부지 관련 문제점 등 경북테크노파크 관리체제의 문제점과 대책은

답) 경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산학연관 공동협력으로 지역산업기술의 구심체로서의 역할 및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1997년 12월에 지정받았으며 그동안 1차사업 기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창업보육 485개 업체, 고용창출 2,450명, 매출액 1,368억원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재 입주기업 약 55개 업체, 상주인력 260명, 입주율 85%를 보이고 있음.

단일 이사장제 및 부지 관련 문제점은 먼저 이사장제는 경북테크노파크 기반조성 당시 출연기관인 지식경제부와 7개 기관·단체 중 지식경제부를 제외한 우리 도와 영남대가 최다 출연기관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영남대총장의 공동이사장제로 운영하게 되었음. 그러나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07. 4월)으로 지식경제부가 지역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사업 거점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운영 및 조직을 표준정관 체제로 전환할 방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이사장제를 단일이사장제로 2007년 9월까지 정관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영남대가 단일이사장제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부지문제와 연계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함.

그동안 경상북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사장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영남대가 주장하는 공동이사장 유지를 협의하였으며, 또한 영남대와 정관개정 및 부지 문제 등 2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각각적으로 협의하였으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다양한 의논과 토론 끝에 의결을 유보하고 3월중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경북테크노파크의 국책사업 공모현황 및 결과는 지난해 지식경제부 국책사업 공모현황과 선정결과를 보면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외 6개 사업 68억원을 응모하여 2단계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외 1개 사업 48억원이 선정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관개정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많지 않음.

거버넌스 미개편 등으로 인한 지식경제부로부터 불이익에 대한 해결 방안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경북,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학주도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비예산관련 결정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하고 부지 현물출연이라는 조건으로 공동이사장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지식경제부, 경북테크노파크, 영남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음.

질) 현재 건설중인 울진공항의 추진상황 및 개항연기 사유와 도의 활용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 울진공항건설사업은 울진군 기성면 봉산·구산·정명리 일원에 1,850천㎡(56만평) 규모로 공사기간은 1996부터 2009까지(당초 2004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는 1,317억원으로 지금까지 용지보상 및 공항건설을 위해 1,147억원을 투입하여 총 공정률 85%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선·안전시설, 레이더시설 등을 설치하면 공항건설이 완료될 예정임.

개항이 연기된 사유는 감사원의 건설교통부 감사시 항공수요 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라는 지적에 따라 개항시기가 조정되었음.

도의 활용방안 모색은 공항 조기 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2009년도 예산 155억원 확보 건의와 동해안발전종합계획에 울진공항 운영계획을 반영하고 포항공항 등 지방공항과 연계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도정질문 답변요지



2008년 3월 4일 제22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 시 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문경)



질) 영양풍력발전단지 타당성 검토 미흡 및 사업축소에 대한 견해, 풍력단지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문제, 김천과 포항의 풍력단지 조성계획은

답) 영양풍력단지 타당성 검토 미흡 및 사업축소에 대한 견해는 지난 2007년 6월 경상북도-스페인 악시오나사간에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 일원에 1억 2천만불을 투자하여 1.5MW 규모의 풍력발전기 43기를 설치하는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산지관리법상 표고제한 등 일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18기에 대하여 3월중 착공예정이며 나머지 25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탄소배출권 소유권에 대한 계획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발전방식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기업 고유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어 투자유치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로 비취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영양풍력발전단지 완공 후 탄소배출권 인증단계에서 산자부, 투자기업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풍력기술 이전과 관련 산업 발전대책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특성상 자체 고용효과는 미미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관련 부품산업 및 R&D 유치의 필수기반이며 악시오나사의 경우 MOU 체결시 국내 최초로 “풍력에너지교육센터”를 설치기로 하여 선진 풍력기술의 국내 본격 도입 토대를 구축하였고 향후 악시오나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발전 사업 뿐만 아니라 부품관련 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계획임.

풍력단지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문제는 영양풍력단지가 조성될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 일원은 지난 1960년대 후반 조성된 화전민 개간지로 사전환경성 검토시 동·식물 집단서식지나 군락지역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지정상부를 따라 입지한 고랭지 채소밭이 대부분으로 상대적으로 훼손이 적을 것으로 판명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김천과 포항의 풍력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김천 추풍령 일원과 포항 호미곶 주변에 몇몇 기업이 계획 중에 있으나 구체화된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고로 풍력단지 조성은 사전에 1년 동안 대상지의 풍속, 풍향 등 풍질을 측정하여 사업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게 됨.

질) 대형 환경사고가 우리 지역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도차원의 대응방안은

답) 21세기 우리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생존문제 중 하나가 환경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깨끗한 환경조성 및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해양 및 내수면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의 대책은 먼저 해양방제는 국가방제 실천계획에 의거 방제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포항해양경찰서장 지휘로 민관 합동 해상방제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해양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오염방지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내수면 방제는 유형별 환경 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민간환경감시협의회 구성 운영과 수질자동감시망을 통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음.

오염사고에 대한 지원기준 및 앞으로 도의 대책은 먼저 해양오염 및 내수면 오염사고에 의한 보상기준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지원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도에서는 해양 및 내수면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사고발생시 직·간접적 피해에 따른 배상 및 재해복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고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피해배상 및 복구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음.

질) 2000년 이후 지방도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와 지방도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은

답) 2003년 이후 지방도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2004년 1월 29일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되어 오던 지방도사업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2008년까지는 교부세법 부칙 제2조에 의거 그간 추진중이던 지방도 사업에 대하여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53억원이 지원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지방도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지방도 997호선으로 상주시 외서면 예외리에서 문경시 농암면 울수리까지 9.9km가 2003년도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어 일부구간을 개량하였으며 지방도 장기계획상 우선 순위에 의거 2008년까지 상주시구간 2.99km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문경시구간 4.1km는 지방도 장기계획상 2011년 이후로 추진할 계획임.

질) 목조문화재의 화재시 복원을 위한 정밀실측자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답) 지금까지 문화재 관리실태는 국가 지정 문화재 573점, 도 지정 문화재 648점, 문화재자료 520점으로 이중 중요목조문화재가 241점이며 재난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소화시설과 방연제 도포 등 소방·방재시설 확보를 추진하였음.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도 지정 목조문화재 153점중 문화재를 해체하여 부재의 치수 등 정밀실측을 실시한 것은 경산향교 등 5건이며 그동안 목조문화재의 80%에 해당하는 123건은 보수공사시 작성된 설계도서를 확보하여 문화재 복원시 활용이 가능하고 도 지정 문화재 148점에 대한 정밀실측은 1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질) 폐광지역 발전대책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군 재정자립도 향상 대책은

답) 문경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쇠퇴해 가는 문경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 1996년 8월부터 폐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낙후지역 균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800, 도비 93, 문경시 107)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개발을 추진하여 도시정비 및 대체산업 기반을 조성한 바 있으며, 아울러 문경지역의 천혜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폐광지역 개발지원의 향후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전국 1개소로 한정 허가된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이익금중 일부를 여타 폐광지역에 배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기반시설, 환경개선, 관광진흥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창업·확장·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폐광대체산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임.

도 및 시군 재정자립도 향상 대책은 도전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28.7%(도본청 20.7%, 시군 24.3%)로 전국 평균 53.9%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그 원인은 지방의 주세원이 재산과세 위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방의 노력여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원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국세 일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인과 지방소비세 신설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 발굴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도정질문 답변요지



2008년 3월 4일 제221회(임사회) 제1차 본회의

전 찬 결 의원 교육환경위원회(울진)



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만큼 문화재의 체계적 과학적 보존 관리대책은

답) 숭례문 화재의 계기로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문화재 현황은 총 1,741점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 573점, 도 지정 문화재 648점, 문화재자료 520점으로 이중 중요무형문화재가 241점임.

우리 도에서는 평소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시·군,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화재 발생 후 대책 수립보다 예방이 우선이므로 수시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하고 소방방재시설 확보에 노력하여 옥외소화전 53개소, 방염도포 130개소, 화재 감지기 1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음.

또한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방화 및 문화재 주변 산불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재 매뉴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재난대비 실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순찰을 의무화하여 관리책임제 확행하고 안전점검의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합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재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 및 공조체계 구축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소방·방재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전 등을 설치하고 국보, 보물, 사적 등 중요무형문화재 49개소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250억원을 문화재청에 긴급지원을 건의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음.

질) 군 단위 의용소방대 최대한 활용방안과 의용소방행정 관리업무체계 일원화 방안은

답) 군 단위 의용소방대 최대한 활용방안은 먼저 의용소방대 현황은 총 371대로 정원이 12,920명으로 현원이 12,049명으로 871명이 부족하고 시지역이 213대에 정원이 7,470명으로 현원이 7,022명으로 448명이 부족하고 군지역이 158대에 정원이 5,450명으로 현원이 5,027명으로 423명이 부족한 실정임.

의용소방대원 충원·교육 및 근무방안은 군지역의 경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대원의 충원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상반기중 부족 대원을 충원토록 노력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소방서별 자체교육으로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여 소방공무원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의용소방행정 관리업무체계 일원화 방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권 및 예산지원 근거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 시지역은 도지사가 임용·관리하고 군지역은 군수가 임용·관리하고 있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참고로 타 시·도의 운영실태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일원화된 자치단체가 14개이며 도지사·시장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2개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임.

우리 道에서는 의용소방행정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의시 안전으로 상정하였으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와 의용소방대 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일원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임용권 및 경비지원 등 일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일원화에 따른 제반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예산확보 방안, 백화현상 복원사업 투자효과 중간평가 및 국비 지원 계획은

답) 해양쓰레기 발생원인은 주로 어부들이 조업중 얽힌 그물을 풀 수 없어 잘라 버리거나 육지에서 폐기 처분시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손상된 그물을 버리는 경우와 재해로 인하여 유실된 어구, 어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생된 폐기물 등 해양쓰레기는 대부분이 나일론 등 화학섬유로 제작되어 자연분해가 어려우며 방치시 운항중인 배의 스크류를 감아 운행을 방해하거나 해양 동·식물에 있어서 텃 역할을 하여 폐사시키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2차 오염을 유발, 서식처의 파괴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 道에서는 최근 5년간(2003~2007) 연근해 침적쓰레기, 연안쓰레기,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쓰레기 등의 수거·처리에 총 사업비 8,351백만원을 투자 13,01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음.

향후 해양쓰레기(폐기물 등) 수거 및 예산확보 방안은 조업허가 발생을 방지하고자 어구에 선주의 실명을 표기하는 어구실명제의 확대·시행('08년 1000척, 300백만원)하고 2008년도에는 5개 연안 시·군에 총 1,875백만원을 투자하여 해역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계획임.

앞으로도 동해안 연근해에서 발생되는 침적된 폐그물 및 해안쓰레기 등 수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해양오염 예방, 어업기반 구축, 선박 안전운항, 어선조업 안전성 및 수산자원보호 등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해역의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백화현상(갯녹음) 발생 현황은 1992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1996년 우리도에서도 발생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북방한계선까지 확산된 실정으로 우리 道의 경우 1,311ha에 걸쳐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포항 571, 경주 73, 영덕 225, 울진 340, 울릉 102ha) 발생원인은 수온상승 및 환경오염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수산과학원에서 추정하고 있음.

바다숲 조성사업 투자효과는 바다의 사막화로 불리는 백화현상으로부터 어장회복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연안해역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다숲을 조성한 결과 연안 생태계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바다숲 조성 이후 연안암반 산호 조류 지역에서 감퇴 등 다년생 해조이 확산되고(10~20% 증가, 동해수연구소 조사 결과) 있음.

참고로 우리 道의 바다숲 조성 효과를 언론에서 취재 보도하였으며(KBS취재파일, MBC시사매거진 등), 타 자치단체(제주, 강원, 전남도 등)에서도 벤치마킹 등 투자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앞으로 국비지원 계획은 인공어초와 병행하여 매년 3억원 정도 해중립 조성 사업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위탁시행하고 있으며(2007년까지 : 56ha 21억, 2008년은 10ha, 2.5억원) 백화현상 복원 과제는 국가적 해양환경 관리 정책인 만큼 국기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겠음.

도정질문 답변요지



2008년 3월 5일 제221회(임사회) 제2차 본회의

박 노 욱 의원 농수산위원회(봉화)



질) FTA 극복을 위한 경북농어업의 중장기 대책과 경북농어업 FTA 대책특별위원회 운영방침과 향후 추진계획은

답) FTA 극복을 위한 경북농어업 중장기 대책은 한미 FTA에 대비하고 경북농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립한 「경북농어업 10대프로젝트」를 여건 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FTA 대응을 위해 마련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와 FTA대책기금 2천억원 조성 등 제도적 재정적인 장치를 바탕으로 농가경영 안정과 지역농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별 순회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농어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 운영방침과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농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해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 설치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방침은 경북농어업의 정책방향과 중장기 비전 제시, 소득과 직결되는 시책 발굴, 지역실정에 맞는 FTA대책 수립, 전문경영인력 양성, 돈 되는 기술개발 등으로 지방농정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정립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 중장기 경북농어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농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기술개발 등 현안 과제를 공모하여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 농민사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 지역별 순회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하는 한편,
-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 제도개선 및 현안사항 중앙건의 등 경북농업이 FTA파고 극복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질) 국제곡물가 폭등과 사료값 급등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과 농협 등 사료값 특별자금 지원방안은

답) 국제곡물가 폭등원인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급증과 미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바이오 에너지 개발 본격화, 지구 온난화 등의 기상여건 악화로 곡물수출국의 수출금지 규제강화 등으로 최근 급등하고 있음.

사료값 부담완화 대책은 최근 국제곡물가의 급등에 따른 사료값의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축농가를 위해 지난 2008년 2월 4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특별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3월중 세부지원자금이 결정되면 우리 도에서도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농협 등 사료값 특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축산단체·대학·농가·관계기관 등이 총 4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농림부와 농협 등 중앙기관에 **사료안정기금 조성 및 농협사료 특별자금 지원**을 통한 농협사료 가격인하 등을 건의 하고 아울러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지원 확대와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은 **양돈·양계분야 특별대책**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상주시 함창읍에 대규모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 100ha**를 조성하고 조사료 증산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과 사료값 급등에 적극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러시아·남미·동남아 등에 해외곡물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음.

질) 도청이전은 300만 도민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답) 도청이전은 300만 도민이 염원하는 경북발전의 백년대계로 도청이전은 지난 '81년 대구시가 분리된 이후 27년 동안 3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임.

다행히도 지난 2월 26일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성공적인 도청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300만 도민의 단합된 힘과 열망이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됨.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해서는 도민화합이 최우선 과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전 예정지가 선정되어야 하고 이렇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갈등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화합이 최우선 과제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간중심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도청이전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이전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도민의 축복과 화합 속에서 도청이전 예정지가 선정되고 도청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질) 낙동강 프로젝트의 소요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할 창의적 사업의 발굴 방안은

답) 투자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먼저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2008년 3월)한 후 이를 국가 시책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건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낙동강특별법 등의 제정과 정부유하 배후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태자원 활용뿐 아니라 경제파급 효과를 위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유치와 에코벤션 및 에코텔 단지 조성, 에코트레일 및 생태관광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이울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창의적 사업 발굴을 위해 먼저 관련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 지속적인 추진하겠음.

질) 도지사 추천 농어촌 특별전형제도의 타 대학 확대와 의예과 등 3개 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에도 확대할 용의는

답) 농어촌 특별전형제도는 1999년 대구가톨릭대와 협정을 맺어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대상자는 읍면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서 재학기간 부모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에 의거 선발하는 제도로 2005년도부터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이외의 행정안전부 신활력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신활력지역에 포함된 市지역 洞도 포함되고 있음.

다른 대학과 일반학과로의 확대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근거하여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어, 더 이상 확대에 인한 실익이 적어 타 대학으로의 확대문제는 추후 검토하겠으며 대상학과 확대문제는 2000년의 경우 의학과 등 3개 학과만 실시하다 2001년부터 컴퓨터통신공학 등 9개 학과에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은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어 의학 관련 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의 경우 매년 지원자 수가 거의 없어 2006년부터 의예과와 약학과, 간호학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도정질문 답변요지



2008년 3월 5일 제221회(임사회) 제2차 본회의

백영학 의원 통상문화위원회(김천)



질)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가족 동반이전 비율이 31.9%로 저조하고 인구증가 및 경제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지원 및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답) 가족 동반이전 비율이 31.9%로 저조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혁신도시 교육환경과 일자리 창출 등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주거·의료·문화 등 자원계획**은 먼저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 입주시기와 연계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교육특구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형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 유치와 김천대학의 4년제 전환, 수도권 재경학숙 무료입소 등 성적 우수자에 대한 학비 및 장학금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음.

주거·의료·문화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원, 탁아소, 유치원 등 종합적인 보육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웰빙 생활을 위한 주말농장 우선분양과 근린공원 녹지대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무료 실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도서관 설치 및 문화예술화관 이용료 감면 등 one-stop비즈니스체계를 구축하고 이전기관 직원이 주택구입시 지방세 감면, 주택우선 공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자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KTX역사 건립, IC 개설,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지방도 확장 등 중앙국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혁신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산하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동반이전을 위한 용지(228천㎡) 확보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관련기관 유치방안」 연구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음.

질)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맞아 독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 우리 경북도는 일본의 주권침해행위에 대해 2005년 도 조례를 제정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앞으로 중앙정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마네현과 교류재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조례로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교류 재개는 있을 수 없음.

독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독도수호 신구상을 발표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역사적 사실 연구, 자연생태 보전 및 복원 등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독도 주변 자원현황과 개발계획은 독도 주변에 광물자원, 수산동물자원,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먼저 주변 해저에 6억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고, 1,5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어장환경 정화, 독도 “강치” 복원 등 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광물자원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센터, 정제공장 유치,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분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울릉도, 독도가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항-울진-울릉도·독도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음.

질) 지역의 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의료시설 및 인력의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노인요양병원의 난립과 부실경영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은

답) 지역 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의료시설 및 인력의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은 먼저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상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개설을 선호하지 않아 의료여건 개선이 미흡하므로 제2기 병상수급계획(2007~2010년)을 수립 시행하여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07년도 29개소 1,323병상) 있으나 의료시설 및 인력 등 의료자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서비스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와 원격진료 실시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노인요양병원의 난립과 부실경영 가능성에 대비한 해결책은 먼저 도내 노인요양병원은 42개소(도·시·군립 9, 민간 33) 4,300여 병상으로 병상수급계획 상의 추정수요에 비해 많은 실정으로 금년 7. 1일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공급 과잉지역에 대해서는 병상수급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 개설 자제와 기능전환을 유도하겠으며 실버산업 활성화 분위기에 기인한 무분별한 병상확대 자제와 요양병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개설심사와 행정지도를 통한 경영 건전화를 도모하여 부실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질)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인프라 확충 대책은

답) 우리 도의 상수도 현황은 99개 정수장에서 1일 96만톤 생산(급수인구 214만명, 보급률 78.7%)하고 있으며

※ 전용상수도 46개소, 소규모수도시설 4,672개소, 취수장 97개소, 상수도 관로 13,633km

상수도 GIS(관망도) 구축도 : 18.2%(전국 78.7%)

※ 구미 32%, 김천 100%, 경산 55%, 청도 96%, 울릉 63%

상수도 보급률이 타 시도보다 낮은 이유는 지역 여건상 산업지역이 많고 지역이 광범위하여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급수구역 확장에 어려움이 많으며 상수도 보급률 1%를 향상시키는 데 약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재정여건상 급수구역 확장에 치중한 관계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배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망도(GIS) 조기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총 4,836억원을 투자하여 취·정수장 23개소를 신설 및 확장하고, 관로 2,084km 개량 및 설치하였으며, 2008년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180개 지구에 738억원을 투자하여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201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81%로, 유수율 76%까지 제고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배관망 관리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망도(GIS) 구축사업을 조기 확대토록 적극 추진하겠음.

도정질문 답변요지



2008년 3월 5일 제221회(임사회) 제2차 본회의

장 병 익 의원 건설소방위원회(군위)



질) 낙동강 프로젝트와 경부운하 배후개발 사업간 연계 방안과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 대책은

답) 낙동강 프로젝트와 경부운하 배후개발의 국가 시책화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경부운하 건설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낙동강 프로젝트는 재정투자 중심으로 경부운하 배후개발 사업은 민간투자 중심으로 추진하며 국가 시책화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음.

낙동강 프로젝트와 경부운하 배후개발의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해 낙동강 프로젝트는 강 양안 주변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며 경부운하는 강 자체 개발하는 사업이며 낙동강 프로젝트는 역사문화, 생태자원 활용한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경부운하 배후개발은 배후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음.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최소화는 먼저 습지 보전을 위해 하천 일부분만 주운 수로로 이용하고 대체습지를 조성하며 골재채취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식수원은 간접취수 방식 등을 검토하겠으며 사전 문제 예측으로 환경피해 등의 최소화해 적극 노력하겠음.

위천·남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낙동강 프로젝트 포함 여부는

먼저 위천·남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3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조류 탐사대, 산책로, 습지 데크, 자연생태관 등을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대책은

답) 개발사업비 국비 지원비율 확대는 먼저 개발비용에 있어 타 지역보다 국비 비율이 낮게 계획된 것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접근성이 양호한 대도시 인근의 소규모 단지이며, 10개 지구중 5개 지구가 이미 산업단지로 계획되어 기투자(국비 3,139억원)가 되고 있어 이를 국비 지원계획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며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50 → 100%)와 지구개발사업비 지원(신규)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경자법의 특별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송금, 외국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법 적용 등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의 의제처리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신설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차문관(KOTRA) 위촉과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 도입 등 투자유치 조직과 관련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으로 최적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대책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나 연계 간선교통망을 개선·확충하고 앞으로 포항 영일만 신항(1992 ~ 2011, 16선석), 남부권 신국제 공항(건교부 용역중),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광역 물류·교통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어 외국인 투자를 배기토록 노력하겠음.

질) 공무원교육원의 도내 이전과 대구시 공무원교육원과의 통합운영과 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답) 도청이전과 별개로 공무원교육원의 도내이전 및 대구시 공무원교육원과의 통합운영 방안은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이전은 도청 이전지의 결정과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 검토하여 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같이 일괄 도내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 사료되며, 대구시 공무원교육원과의 통합운영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이미 대구시에서 팔공산 자락(동구 도학동)에 부지를 확보하는 등 공무원교육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어 통합운영에는 기구·인력 조정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우수 교수요원 확보 대책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면 교수요원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교수요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교수요원 임용시 공사생활이 청렴하고 개인의 능력과 학력, 경력, 징계유무 등 교수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용하고 앞으로도,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감안, 교수요원으로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또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전보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수교수 요원의 확보에 노력하겠음.

질) 영천~군위 우보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동명~부계간 도로공사의 팔공산 터널 등 조속한 완공을 위한 대책은

답) 국도28호선 영천~군위 우보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는 총 40.5km에 5,0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4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지난 2001년 착공하여 2008년 3월 현재 영천~신령~고로간 3개 구간 26.1km에 대하여 1,276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으로 그중 신령~영천간 2개 구간 18.3km는 2011년, 신령~고로간 7.8km는 2015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로~우보간 14.4km는 아직까지 미착공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형편상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의 완공 위주로 배정하고 있어 미착공 구간은 2009년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동명~부계간 도로공사 조기완공을 위한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대책은 동명~부계간 도로는 칠곡군 동명면과 군위군 부계면을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 79호선으로서 지난 2006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및 기획예산처에서 총사업비 2,411억원을 확정하였으며 총연장 14.2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터널 3.6km, 교량 12개소 건설, 급구배 및 선형불량과 동절기 강설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 통행시간 단축, 경북북부 내륙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2,124억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상비(185억원)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11일 공사를 발주하여 3월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4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 등 조기완공토록 노력하겠음.



의장단 Chair Group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



이상천 의장(포항시4, 한나라)은 1월 24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우수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제11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노사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들을 축하하였으며,

1월 25일 영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단체 및 체육회 임원과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 경북체육회 신년회」에 참석하여 올해도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북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1월 26일과 27일에는 일본 오사카도민회와 동경도민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고국을 떠나 일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교민들을 위로·격려하면서 고향 경북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하였으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국제대학생스포츠연맹(FSU) 총회」에 참석하여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WUEF)」의 경북도 유치활동을 펼쳐, 성공적인 유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이어서 3월 3일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기초·교통질서 위반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최근 법질서 경시 풍조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경북을 구현하는데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안윤식 회장에게 200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미있는 적십자 사업에 도민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3월 19일 영덕 해맞이공원에서 갖게 된 2008년 봄철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자원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3월 28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경북지역 예선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여 그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는 장애인들에게 진한 애정을 전하며, 오늘 그 소질과 예술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하였다.

이외에도 2월 14일 경도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하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젊은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고,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3월 12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있었던 경상북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여 경북은 의회가 앞장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의 투자확대를 요청하였으며, 3월 20일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사업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참외수출 발판의 초석을 다질 것을 당부

방대선 부의장(성주군1, 한나라)은 2월 26일 성주참외영농조합원 등 성주군민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참외수출센터 관계인 등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사를 통하여 성주참외의 경쟁력 제고와 참외수출센터의 준공식을 계기로 지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참외 수출 발판의 초석을 다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3월 14일 성주참외의 본격적인 출하를 담당할 성주참외농협공판장 개장행사에 참석하여 성주참외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지공판 활성화와 성주참외의 명성을 드높여 나갈 것을 당부하고 참외산업의 특화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깨끗한 선거에 앞장서기를 당부

안순덕 부의장(의성군2, 한나라)은 1월 18일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WTO/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위기극복 및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경북농어업FTA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2월 4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경상북도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한시장애인공동체”와 “노인복지한알”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그리고 2월 29일 청도읍 청도천 고수부지에서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로 승화시켜 스스로 실천하는 “공명선거 새마음운동 점화식”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깨끗한 선거에 앞장서기를 당부하였다.



의회 홈페이지 안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연중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council.gb.go.kr>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도민의 소리



문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고우현 의원(문경시2, 한나라)은 1월 14일 국군체육부대 영외거주자 아파트 건립 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문경지역의 도시개발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월 7일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계자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동세탁서비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그동안 행사준비에 고생한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하였다.



우리 지방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여 줄 것을 당부

권영만 의원(봉화군2, 한나라)은 1월 15일 각 기관단체장 및 의용소방대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춘양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하여 “우리 지방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서 1월 30일 법전농협에서 농협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올 한해도 다함께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다양한 축제개발과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발전

김기홍 의원(영덕군1, 한나라)은 1월 17일 영덕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황금은어 양식장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열린 토론을 펼쳤으며, 이 설명회에서 황금은어 양식장을 활용하여 낚시대회,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축제개발로 주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교육을 잘 받아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재배해 달라고 당부

김만용 의원(의성군1, 한나라)은 1월 8일부터 1월 24일까지 의성군 의성읍, 단촌·점곡·옥산·사곡·춘산·가음·금성면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지역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새해영농교육에 참석하여 최근 한·미 FTA 등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부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용기를 잃지 말고 신기술 교육을 잘 받아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재배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농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노고를 격려

김수용 의원(영천시2, 한나라)은 2008년 새해를 맞아 영천시민들과 함께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보현산 정상 해맞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또한 1월 2일부터 영천문화원, 금호읍, 상공회의소, 자유총연맹, 고경면 등 지역 기관 단체의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영천시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1월 16일부터는 각 면 단위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하여 지역농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노고를 격려하였다.



소방서 인력확충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김숙향 의원(비례대표, 민주노동당)은 1월 25일과 1월 31일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통하여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추진배경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등 장애 관련 각 단체 임원,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의견 개진과 열린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월 22일 포항 북부소방서 간담회에 참석하여 소방서 인력확충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지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봉사단체로 거듭날 것을 강조

김영기 의원(청송군1, 한나라)은 1월 4일 청송군 청년회의소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JC 특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JC특우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지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봉사단체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월 10일 청송군 진보면 진보초등학교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학부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졸업식에 참석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사회를 위해 큰 재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

김영만 의원(군위군1, 무소속)은 2월 21일 군위군 우보면 간동 고수부지에서 개최된 「2008 달맞이 면민화합 한마당 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며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지역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하여 도의원로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3월 14일 군위친환경영농조합법인사무실에서 개최된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현장순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최근 농업경영 여건의 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도록

김영택 의원(구미시3, 한나라)은 2월 28일 구미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참석하여 최근 노사동향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면서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도록 경영계가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9일 구미 인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하였다.



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

김응규 의화운영위원장(김천시2, 한나라)은 1월 23일 김천시 르네상스 웨딩홀에서 이북 5도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자유의 날 기념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투철한 반공의식과 세계인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월 23일 김천청년회의소에서 개최된 현역의원, 특우회원, 부인회원 합동 웃놀이대회에 참석,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지역의 어려운 일에 JC인들이 언제나 앞장서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서 3월 6일 전라북도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차 전국 시도의화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 지방의회 성과 공표제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제도에 대하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9회 순흥 초군청 민속축제」 참석

김종천 의원(영주시1, 한나라)은 2월 21일 영주선비촌 광장에서 3,000여명의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9회 순흥 초군청 민속축제」에 참석하였다. 풍년기원의례, 성하·성복줄다리기, 달집태우기 등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유교문화의 발상지로서 전통문화를 찬란히 꽃피웠던 순흥지역의 고유 민속문화를 발굴 전승하여 전통문화 육성과 관광문화 산업발전에 적극 힘쓰겠다고 하였으며, 이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농민들과 지역농업의 발전방안을 함께 토의

나규택 의원(고령군2, 한나라)은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고령군 다산면·성산면·개진면에서 개최된 영농교육에 참석, 축시를 하고 농민들과 지역농업의 발전방안을 함께 토의하였다.

또한 1월 26일에는 고령군 다산 주물공장 총회에 참석, 축시를 통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1월 29일과 1월 30일에는 다산농협과 동고령농협 총회에 참석하여 축시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지원에 농협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계시장 개척에 우리 모두 매진하자고 강조

남종식 의원(청송군2, 한나라)은 1월 23일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청송 사과 I.P.M사업단 총회」에 참석하여 국내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세계시장 개척에 우리 모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2월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다문화가정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에 참석하여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적 지지와 지역사회에 함께 어우르기가 필요한 때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박기진 의원(성주군2, 한나라)은 3월 20일에 성주농산물 산자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8년도 농산물 공판 개장식에 참석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참외시설 농기계 보급확대 등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그동안 행사준비에 고생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2월 22일 성주군 초전면 닭살마을화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을 위로 격려했다.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필요

박노옥 의원(봉화군1, 한나라)은 2월 12일 물야면에서 개최된 「다문화가정 간담회」에 참석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이들의 문화적 갈등 및 경제적 빈곤 등 종합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3월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친환경농업인협의회」에 참석하여 최근 농산물 개방 압력과 국제곡물가 폭등, 지속적 유가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생명산업인 농업은 포기할 수가 없는 우리의 자존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시민축구단 창단을 계기로 문화체육의 발전을 기대

박병훈 의원(경주시2, 한나라)은 3월 7일 경주황성공원 내 시민운동장에서 정몽준 축구협회장 및 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경주시민축구단 창단식」에 참석하여 축구단 창단을 계기로 문화체육의 발전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20일 동리·목월 문학관에서 열린 「신라를 빛낸 인물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본 인물관 개관은 신라인의 업적을 재조명함으로써 신라인의 혼이 숨쉬는 천년고도 경주를 홍보하고, 이와 연계한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의 관광명소 재도약 효과도 기대되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칠곡을 대표하는 매화를 위하여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

박순범 의원(칠곡군2, 무소속)은 2월 17일 왜관읍사무소에서 기관단체장 등 400여명의 왜관읍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왜관청년협의회 제23회 민속 옷놀이 한마당행사에 참석하여 따뜻한 국밥을 나눠먹으며 주민들과 환담을 나누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3월 21일 칠곡군 기산면 송광매원에서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광매원 2008 매화축제에 참석하여 칠곡을 대표하는 매화를 위하여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 물의 중요성과 물사랑 강조

박순열 교육환경위원장(청도군1, 한나라)은 3월 21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6회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물의 중요성과 물 사랑을 강조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연계 고령프로젝트 사업추진 보고회에 참석

박영화 의원(고령군1, 한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월 14일 고령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새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과 관련한 낙동강연계 고령프로젝트 사업추진 보고회에 참석하여 지역의 정책현안사항과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3월 7일 최근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가이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인증서 전달과 현판을 게첨하는 행사를 가지고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하였다.



생활체육시설 관련 주민간담회 가져

박진현 의원(영덕군2, 한나라)은 지난 3월 20일 영덕군수 및 축산·병곡·창수·영해 4개면지역 이장, 체육회장, 체육동호회장 등 지역단체 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체육시설 관련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평소 열악한 생활체육공원시설에 대한 각 지역 단체대표들과 운영실태 및 시설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향후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도정 및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울진대게 서식지 및 생태환경보전을 강조

방유봉 농수산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2월 21일 울진군 월송정백사장에서 개최된 2008 월송정 달맞이 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금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며 지역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28일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개최된 2008 울진국제대게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게 생산량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울진대게 서식지 및 생태환경보전을 강조하며 대게의 고품질을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제행사로의 위상을 제고는 물론 해양관광중심 도시로의 청정지역 울진을 알라자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 김천시 · 삼성 에버랜드(주) 간 태양광발전소 건립」 MOU 체결식

백영학 의원(김천시1, 한나라)은 1월 30일 「경상북도 · 김천시 · 삼성 에버랜드(주)간 태양광발전소 건립」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김천시 어모면 일원 70만㎡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 사업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발전소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자랑스런 구미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

백천봉 의원(구미시1, 한나라)은 2월 15일 구미시 구미고등학교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학부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졸업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을 빛내는 자랑스런 구미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월 21일 구미시 지산동사무소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민속놀이 축제에 참석하여 달집태우기 행사를 통해 구미시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범죄예방 정기총회 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

손덕임 의원(비례대표, 통합민주당)은 3월 2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법무부장관, 전국 연합회임원,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전담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주관 범죄예방 정기총회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경환 법무부장관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손덕임 의원은 이에 대해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 등을 적극 건의하였다.





중증 장애인 조례 제정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

송진영 의원(영주시2, 한나라)은 1월 12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역대 JC 회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등 많은 내빈과 JC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북자구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축하 및 격려했다.

또한 1월 25일 영주가흥종합복지관에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관계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생활속의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다짐

송필각 의원(칠곡군1, 한나라)은 2월 18일 칠곡군 가산면사무소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향토애를 쌓는 가사모에 대해 감사와 더욱 지역을 사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 1일 3.1절 기념일을 맞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애국동산을 찾아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생활속의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다짐하며 기념비에 헌화하였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윤영식 의원(예천군2, 한나라)은 1월 18일 예천군 유천면사무소에서 2008년 유천면 의용소 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군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월 4일 예천군 풍양면 낙상2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경로당이 마을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마을주민이 준비한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었다.



사회질서유지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윤창욱 의원(구미시2, 한나라)은 1월 16일 구미경찰서 형곡지구대에서 각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사 개축준공식에 참석하여 청사개축을 축하하고 사회질서유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2월 21일 구미 금오산에서 관내 기관단체장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오대 제에 참석하여 구미시민의 안녕과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2월 22일에서 24일 기간중 상모·사곡동 등에서 열린 정월대보름맞이 웃놀이 대회에 참석, 올 한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주민들과 환담을 나누는 등 주민화합에 힘썼다.

공명선거 문화정착 캠페인을 전개

이준호 의원(청도군2, 한나라)은 2월 1일 청도군 기관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화합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월 29일 「공명선거 새마을운동 점화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우려를 표시하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에서 부정부패의 척결과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의 시발점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신도1리에서 공명선거 새마을운동 재화식에 이어 청도천 고수부지에서 공명선거 기원 점화식을 거행하고 공명선거 문화정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공정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마련 촉구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예천군1, 한나라)은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영주, 경주 등 도내 4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개최하는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역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공정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월 22일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신도청소재도시의 규모와 이에 따른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 일정과 장소도 함께 결정했다.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징물 심사

장경식 의원(포항시3, 한나라)은 3월 12일 구미 폴리텍대학내에 마련된 전국기능경기대회 TVF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징물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대회상징물(엠블렘, 포스터, 마스코트, 슬로건, 표어)을 선정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기능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전문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열린 기능경기대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주민들의 고충과 지역숙원사업을 현장에서 듣는 시간

장길화 의원(비례대표, 한나라)은 3월 19일 경주시 감포읍 수산인 회관준공식에 참석하여 수협간부 및 관련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감포해안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경주 제2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동경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고충과 지역숙원사업을 현장에서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도심 재생과 도시공동화에 관한 문제점 제기

장두욱 의원(포항시2, 한나라)은 1월 29일 대구 엘디스리조트호텔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한 『도심 재창조연구회 창립총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도심 재생과 도시공동화에 관한 문제점 제기와 해결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3월 12일에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노인문제와 관련된 포항시 「2008년 어르신일자리 발대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와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했다.





중증 장애인 조례 제정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

송진영 의원(영주시2, 한나라)은 1월 12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역대 JC 회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등 많은 내빈과 JC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북자구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축하 및 격려했다.

또한 1월 25일 영주가흥종합복지관에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관계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생활속의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다짐

송필각 의원(칠곡군1, 한나라)은 2월 18일 칠곡군 가산면사무소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향토애를 쌓는 가사모에 대해 감사와 더욱 지역을 사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 1일 3.1절 기념일을 맞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애국동산을 찾아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생활속의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다짐하며 기념비에 헌화하였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윤영식 의원(예천군2, 한나라)은 1월 18일 예천군 유천면사무소에서 2008년 유천면 의용소 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군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월 4일 예천군 풍양면 낙상2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경로당이 마을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마을주민이 준비한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었다.



사회질서유지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윤창욱 의원(구미시2, 한나라)은 1월 16일 구미경찰서 형곡지구대에서 각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사 개축준공식에 참석하여 청사개축을 축하하고 사회질서유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2월 21일 구미 금오산에서 관내 기관단체장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오대 제에 참석하여 구미시민의 안녕과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2월 22일에서 24일 기간중 상모·사곡동 등에서 열린 정월대보름맞이 웃놀이 대회에 참석, 올 한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주민들과 환담을 나누는 등 주민화합에 힘썼다.

영어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촉구

이상용 의원(영양군2, 한나라)은 3월 4일 제2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를 질의하면서 대통령 공약 중의 하나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경상북도의 주도적인 대응논리 개발필요성, 영양군의 경우를 예로 든 농촌 화재 예방·소방 대책 및 119 지역대 통폐합에 대한 소방력 강화방안, 경북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울진공항 활용방안, 도 교육청의 영어교육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울릉군 지원과 독도 알리기에 적극 동참 요청

이상태 의원(울릉군1, 한나라)은 제220회 임시회 도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관련,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울릉군과 독도에 대한 종합발전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현지확인을 울릉도와 독도로 할 것을 건의, 지역경제현장과 주민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 지원 및 생필품 해상수송비 보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전달, 소속 위원들의 지원약속을 받는 등 울릉군과 독도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였다.



「경상북도·경주시-Seohan ENP(주)」 MOU 체결 및 「2009 경북 민속문화의 해」 MOU 체결

이상호 통상문화위원장(경주시1, 한나라)은 1월 29일 경주현대호텔에서 「경상북도·경주시 Seohan ENP(주)」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월 27일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24개 분야에 35억 6천 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2009 경북민속문화의 해」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경북의 민속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민속문화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JC를 통한 의정활동」 특강

이시하 의원(문경시1, 한나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월 3일 문경대학에서 각급 기관 단장장, 입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문경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입학생들의 가치있는 성장과 사회요구인으로서 학업을 강조하며 학생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3월 22일 문경시 호계면 성보예술촌에서 점촌JC 회원연수회에 참석, 『JC를 통한 의정 활동』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하여 JC생활 속에서 자기개발을 통하여 잘 숙련된 회의진행으로 완벽한 의원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우회원과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간담회 개최

장병익 의원(군위군2, 한나라)은 1월부터 2월까지 군위군 의흥읍, 고로·부계·산성·우보 면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지역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새해 각종 영농교육(벼농사, 대추재배, 사과, 양념류)에 참석하여 최근 한·미 FTA 등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용기를 잃지 말고 신기술 교육을 잘 받아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재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각 면에서 실시한 군정보고에서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수렴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양대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

장세현 의원(포항시1, 한나라)은 2월 14일 포항시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학부형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에게는 앞으로 해양 대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5월경에 있을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어촌체험마을 통해 부자마을의 꿈을 키워 나갈 것을 기원

전찬걸 의원(울진군1, 한나라)은 1월 11일 울진군 북면 나곡1리(석호마을)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어촌 체험마을 준공식에 참석하여 지역에 바다낚시공원이 조성되고, 어촌체험마을이 들어서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자마을의 꿈을 키워 나갈 것을 기원했다.



도정발전과 의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토론

정경구 의원(안동시2, 한나라)은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영주, 경주 등 도내 4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개최하는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역 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공정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입지기준의 경우 특정지역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또한 3월 13일 김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의정연구회세미나에 참석하여 도정발전과 의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토론을 하였다.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웃놀이대회」 참석

정무웅 의원(울릉군2, 한나라)은 3월 24일 울릉읍체육관에서 15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새마을부녀회 웃놀이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날 행사에서 격려사를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놀이인 웃놀이를 계승발전 시키고 주민의 단합과 지역발전에 주민 모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지정학적 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역경제가 낙후되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 농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

조동만 의원(영양군1, 한나라)은 3월 5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2008년도 환경 농업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지금 세계는 농산물시장은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환경 농업대학 교육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능한 농업인 양성에 있는 만큼, 자부심이 충만한 우리 농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3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인 영양군에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로 자리하게 될 전문의료센터의 개소를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보다 건강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돕겠다고 말했다.



부자경복 만들기에 여성계가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

채옥주 의원(비례대표, 한나라)은 1월 1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및 여성 단체협의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부자경복 만들기에 여성계가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월 12일 서울 한국걸스카우트연맹회관에서 한국걸스카우트 임직원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걸스카우트 전국 이사회에 참석하여 200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이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BPW한국연맹 운영위원회 연수 개최

최윤희 의원(비례대표, 한나라 : BPW한국연맹회장)은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1박2일 간) 대구 EXCO에서 BPW한국연맹운영위원회 연수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참석한 운영위원 40여명에게 대구·경북을 소개하며 2014년 BPW세계대회 유치 후보도시인 대구 컨벤션센터와 팔공산 동화사, 방짜유기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이번 연수는 BPW한국연맹 21대 신임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임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BPW한국연맹의 발전을 위해 백정단 12대 연맹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영천시 「여성단체 신년인사회」 및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한혜련 의원(영천시1, 한나라)은 1월 8일 영천시 「여성단체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여성 단체협의회 및 기관단체장들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 증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3월 19일 영천시 북안면 북안농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광역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 육성농업을 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 농업 모델 육성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강연

황상조 건설소방위원장(경산시2, 한나라)은 1월 29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의용소방대 간부 및 소방공무원 등 170명이 모인 워크숍에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 강연을 하였다. 또한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에 임용되어 2008년 1학기부터 「경제와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경북도민일보 2008. 1. 8



경북도의회는 7일 도청강당에서 이상천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관용 도지사, 조병인 도교육감, 도의회자문교수, 고문 변호사 등 200여명의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경북중흥의 새로운 역사 만들어 가자’

경북도의회 신년교례회

경북도의회는 7일 도청강당에서 이상천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관용 도지사, 조병인 도교육감, 도의회자문교수, 고문 변호사 등 200여 명의 기관단체

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이제 경북 발전, 경북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는 일만 남았다”며 “우리 모두 300만 도민들의 삶

살이가 한결 나아지고 편안한 가운데 도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으고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선진의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더 한층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현철기자 shc@

영남일보 2008. 1. 14

지방의정 논란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사상 최대의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컸음을 의미한다. 그 변화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한국경제의 회생이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일 것이다. 실제 이명박 당선인의 92개 공약에서 30개, 그리고 20대 핵심공약 중 절반 이상이 경제 및 산업관련 공약으로 나타났음은 이를 방증한다.

이에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 선진화와 삶의 질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신 발전체제 구축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국정 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은 당선자의 실용주의적 노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정방향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전과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나아가서 어떻게 선진화의 동력으로 확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구조의 질적인 측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간 불균형이다. 특히 블랙

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

홀파도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단지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의 동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만약 새 정부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화를 가속화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 규제완화는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수도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실효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선행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인력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 지

었다. 수도권의 경쟁력만으로 전국을 떠안고

공법위하게 절치게 되었습시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사랑속에 힘든 시기를 이기고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앞장서서 불우이 설을 위문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은 물론 사회복지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황경호 기자

영남일보 2008. 1. 2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추진

경북도의회 3월 임시회 상정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경북도의회를 방문, 기술과 의욕을 가진 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과 배제에 맞서고 싶어하고 싶어도 일지리를 구

용중합복지관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북부권역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오는 31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남부권역 간담회를 가진 뒤 2월 중으로 조례안을 확정, 3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손진영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도의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경북일보 2008. 1. 25

경북도의회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조례 추진

경북도의회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영주 가흥종합복지관에서 손진영 부위원장을 비롯 행정보건의복지위원, 장윤석 국회의원, 김주영 영주시장, 영주시의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16일 경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손 부위원장의 주제로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단체인, 장애인 가족의 의견 개진과 함께 장애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 보인다.

손진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북도의회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가족 등을 수렴해 최선의 안을 마련,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조례를 제정하

이라고 말했다.

양승복기자 yang@kyong

아시아일보 2008. 1. 28

경북도의회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민속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내 18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위문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경상북도의회위원이 직접 지역구별로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한다.

이상천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

민속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보다 인간적인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사람과 장 아름답고 송고한 것은 사랑과 봉사입니다.”라고 밝히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이 중요함으로 이번에 추수감인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전체 도의원 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역구별로

일간대구경북 2008. 1. 25



김기홍 경북도의회원 '사랑의 공동체' 방문 (영덕)은 지난 22일 일출
찾어 언니를 배려한 '사랑의 공동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구가
차움을 격려했다.

영주시

道,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간담회

2008. 2. 1

일간대구경북 2008. 1. 28

“용기·희망 심어주는 역할 중요”

경북도의회, 도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2008. 2. 5

경북도의회, 조례제정에 주민여론 수렴 “눈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북부권역 간담회 열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북부권역 간담회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의 주관으로 25일 오후 2시 영주 가흥초등학교에서 열려 논의를 끝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출신 순진영 도의회 행정보건의
지 부위원장장을 비롯, 경북도의회 의원, 장운석 국회의
원, 김주영 영주시장, 영주시의회 의원, 장애인단체 관
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16일 경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민여론을 듣기 위해 연

회참여와 평등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안을 마련, 행정보 건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숙형 도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해 있어 기술과 의욕을 가진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21세기 급증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손진영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제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단체 임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사업 담당자 등 40여 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장애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간절히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제정의 의견을 듣는 유일한 자

한편 조세제정을 위한 남부권역 간담회는 오는 일 오후 2시 경산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월 중에 간담회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조세안을 화 3월 중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해 심의토록 할 것이다.

일간대구경북 2008. 2. 5

“경제자유구역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김수용 영천도의원, 토론회 참석



김수용(영천) 도의원은 "대구경북 지식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역에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민들도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크게 고무되어 있고, 본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지구 지정, 경제자유구역형 설치 등 행정적인 절차와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시행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자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기반조성사업의 국비를 현재보다 높게 지원되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포함한 획기적인 법령 정비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박노홍기자

신아일보 2008. 2. 14

경북도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최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 받아

민생관련 조례안·현장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도민민생 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220회 임시회를 개

지난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조병인 경강북도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2008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북도 각 실·국·본부 별로 업무보고 및 안전처리, 경북도내 사업소에 대한 현지화이이 이어진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기능이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다.

한편, 2월 20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경북도의회/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

경북도의회/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경북일보 2008. 2. 15

경북도의회 환경행정 관리 일원화

도의원 34명 대표 발의...관련조례 개정 등 정부 차원 제도

경북도의회는 환경행정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분산돼 있는 환경행정 관리의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수용 도의원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료의원 34명과 함께 환경행정관리 일원화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환경행정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현행 환경업체 업무권한은 연간 오염

물질 발생량이 대기배출의 경우 20톤 이상인 1, 2종은 시·도지사 권한이고, 20톤 이하인 3, 4, 5종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다.

또 소음, 진동 배출시설과 생활·공사소음 및 악취는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며, 폐기물 처리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장 권한이고, 지정외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매우

이로 인해 영천지역의 경우년부터 아파트 밀집지역인 창파트 입주민들은 인근 공장에 분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 환경적 겪고 있다.

하지만 현행 환경관련 인·허

가·점검업무 권한 조령 등으로 자치단체별로 인원을 해감하자 김수용 의원은 환경 관련 조례에서

일간대구경북 2008. 2. 19

도의회, 장애인 복지증진 '앞장'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자립생활지원조례 반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19일 제220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현시활동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편견과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재활 및 교육환경도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활지원조례"가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우경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은 "장애인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재활치료 등 다양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되어 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경북도민일보 2008. 2. 21

영남일보 2008. 2. 20

"경부운하 물류터미널 입지 선정 대구시-고령군 상생방안 찾아야"

나규백 경북도의원 주장

"대구시는 자체에 달라." 나규백 경북도의원(고령군·사천)이 경부운하 대구-경북지역의 대동항 및 물류터미널 부지 선정과 관련, 대구시의 움직임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나규백의원

나 의원은 20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운하 대구-경북지역의 대동항 및 물류터미널 부지 선정과 관련, 대구시의 움직임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나 의원은 "다익 확정되지도 않은 대구로 국제사범을 놓고 대구시와 고령군에 어떤인수적으로 자에게 어떤 자력으로 유치하겠다는 소모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구시

임의로 결정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대구와 경북은 그동안 함께 성장해온데 공생상생을 공유하면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뿐 아니라 대구경북경제추진위원회도 제정했다"며 "대구시와 고령군은 소액적인 투자를 베풀 국가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있도록 마리를 맞대어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군은 현재 다산전 임원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항구시설, 업무복지시설 등을 갖춘 연구·관광·문화·물류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대구시는 대동항 부지를 달빛호는공공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대동항

대구일보 2008. 2. 21

경북도의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4개 처리

20일 경북도의회는 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의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북도의회는 '환경행정 관리 일원화 촉구 결의안',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경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 조례(이상 일부 개정)', '경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개 조례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도교육감이 제출한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장대진(안동) 전 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교육환경위원회 박순열(청도) 의원을 선출했다.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총 42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전찬걸(울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 신임 위원장은 초선으로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청도청년회회장 회장이다.

이승욱기자 lsw@idaegu.com

도의회 교육환경위원장 박순열 당선

경북도의회, (5개 주요안전처리) 임시회 폐회



박순열의원

경북도의회 20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환경위원장 장과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 위원장에 박순열(사천) 의원(청도)이 당선됐다. 부위원장은 전찬걸 의원(울진)이 선임됐다.

올해 첫 회기로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정과 도교육청의 새해 주요 업무보고와 김수용 의원의 34인이 제출한 환경행정관리 일원화 촉구 결의안을 비롯,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

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0일 폐회했다.

박순열 교육환경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경북도교육청과 환경해양산업국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쏟겠다"며 "앞으로 교육환경위가 어느 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찬걸 교육환경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해 교육환경위원회의 손과 발이 되어 경북도의회의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

경북일보 2008. 3. 4

제 22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첫날 울진공항·도문화재·연안오염 관련 도정질문

제 22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가 4일 오전 11시 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용(영양), 이시하(문경), 전찬걸(울진)의원이 울진공항 활용방안 모색문제, 도지정문화재 관련 대책,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각각 도정질문을 펼친다.

5일에는 박노옥(봉화), 백영학(김천), 장병익(군위)의원이 도청 이전과 관련,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 낙동강프로젝트와 경부운하 건설 관련의 도정질문이 이어진다.

다음은 첫날 도정질문 요지.

△ 이상용 의원=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 중의 하나인 5+2 광역경제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의 실익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이상용 이시하 전찬걸

지관리법 및 백두대간보호특별법의 관련 법령으로 인해 풍력발전지의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의 MOU를 결하면서도 경북도 차원에서 터빈성과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를 면하게 하지 않은 결과이며, 도지사 스페인까지 가서 체결하는 MOU 50%에도 못 미치는 계획으로 진행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전찬걸 의원= 세계적으로 청해역을 자랑하는 동해안이 각종 기름의 해양투기가 누적 되면서 대한 쓰레기장이다 못해 죽음의 바다로 전락하고 있다. 연안 해양수거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물망에 대한 향후 수거 계획과 예산

경북일보 2008. 2. 26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와서

지방분권위한 특단 조치 마련되길



■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

이제 희망을 노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취임식을 통해 몸소 체험했다.

국민통합과 민족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충심으로 축하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는 동안 나라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커져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세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인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여건을 하는 한편 대국적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보 등 지방분권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국민에게 주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대구경북 시도가 변화하는 지와 성취를 보내자

대구시민일보 2008. 3. 5

議

경북일보 2008. 2. 26

5년 뒤까지 오늘의 각오 변치 않길



■ 채옥주 경북도의회 의원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위한 모습으로 비쳐 보기 좋았다. 권위적 모습이 사라지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에서 희망과 기대가 느껴진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다는 취임사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 5년을 한결같은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한다.

대구일보 2008. 3. 5

반쪽짜리 사업·문화재 보존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경북도의회 221회 임시회 첫날인 4일 도의원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영양풍력단지조성사업의 문제점, 경북테크노파크 이사장제 논란, 도내 문화재 보존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반쪽짜리" 영양풍력단지조성사업, 대책은?

행정보전복지위 소속 이시하 의원(문경시)은 지난해 경북도가 스페인의 악시오나사와 맺은 영양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MOU체결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양풍력단지조성사업이 각종 개발 제한 등에 묶여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성 예정지가 백두대간 보존산지 구역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표고제한 규정으로 인해 산정장으로부터 산지개발허가가 거부됐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발전기 4기에서 18기로 축소는

등 MOU체결 당시에 비해 42% 규모로 대폭 축소되면서 추가 투자 계획도 지켜보아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경북도 차원에서 타당성과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않은 결과"면서 "준비와 추진 과정에서 허술함과 계획대비 실제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 투자홍상본부는 "산지전용 허가를 취득한 18기에 대해 우선 3월초 착공하고 나머지 25기는 조속한 시일내 영양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 경북테크노파크 이사장제 논란 일단락 방안은?

이상용 의원(영양군·기획경제위원회)은 이사장제 개편을 두고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설립된 경북테크노파크는 출연기관에 단일 이사장제 개편을 두고 1년 넘게 기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상용(영양) 이시하(문경)

서 "이로 인해 정부사업에서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과학진흥본부는 "영남대와 정관개정 및 부지매입 등 20여 차례 모임을 가지며 각도로 협의했다"면서 "하지만" 남대가 부지 문제와 연계해 단일사업자를 반대하고 지난해 1월 사회에서도 의견이 유보돼 3월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도내 문화재 보존 대책은

교육환경위 소속 전찬걸 의원(울진군)은 최근 소실된 국보 숭례문 전소 사건과 관련해 지역문화재 보존 대책 전면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 생활용수 공급실태 확인

"현장실사 토대로 제발방지 등 특단 조치 논의"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박순열)는 4일 구미시경관역에 위치한 경북도보검관연구원에 회합해 위생부 업무를 감사해 하는 한편, 회계현황인 주(주)로유유와 김천공장을 방문, 사고경위와 수송과정을 살폈다.

박순열 위원장은 "이날 현장실사를 토대로 5일 상임위에서 집행부와 함께 제발방지와 영남권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환경위 위원들은 하천

수출 해수용 경북도보검관연구원에 회합해 위생부 업무를 감사해 하는 한편, 회계현황인 주(주)로유유와 김천공장을 방문, 사고경위와 수송과정을 살폈다.

박순열 위원장은 "이날 현장실사를 토대로 5일 상임위에서 집행부와 함께 제발방지와 영남권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환경위 위원들은 하천

본 요소를 유해물질 축적사고로 낙담할 수 없게끔 "제발"이 검출한 때 취수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제발" 수돗물 공급이 이런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이번 낙동강 제발 유입사고와 관련해 관련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문제제 급급했던 것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구경북지역에 사·도민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최철을 기자



경북일보 2008. 3. 7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조례 본회의 상정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 현지 방문 등 통해 의견 수렴 제정

장애인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복지시책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22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장애인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월 영주시중증장애자립지원센터에서 북부권역 간담회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중부권역 간담회를, 경주시립박물관에서 남부권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경북도의회 이우경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경제적 활동이 어렵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2008. 3. 5

사·도의회 사정질문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호)는 5월 제167회 임시회에서 집행일 대구시청과 시청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정질문을 했다. 다음은 질문 요지.



이동희 의원

서종현 의원

박노국 의원

박정학 의원

장병익 의원

△이동희(수정구) 의원=자여의 인대가 대구를 떠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여의정원을 위해 자여 인대가 자여에서 자리잡을

원래에 최소한의 규제정책을 펼칠 의향은 있는가. 또 자여에도 시민단체가 대거 입주, 정기버스도 입찰 경쟁자들로 산업 발전, 교육

보급이 위한 인가, 또 경북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운영과 앞으로의 협력사업에 대해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지상중계

제 221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는 5일 김관용 도지사와 조병인 도교육감을 비롯 집행부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3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질문을 펼쳤다. 도정질문과 답변을 지상중계한다.



도시철도 관련 교통 혼잡 대책은 무엇인가

경북일보 2008. 3. 11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독도 앞 해상에서 독도주인인 김성도씨와 함께 독도사랑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울릉·독도 관광자원 개발 적극 지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생활경제위 현장 점검

경북도의회가 본격적인 봄철 관광시즌을 앞두고 울릉군과 독도에서 여행객들과 에너지 공급시설 등 생활경제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주말 울릉군과 독도를 잇따라 방문, 주민 생활경제현장 점검과 함께 독도사랑 캠페인을 펼쳤다.

이현준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은 울릉군청을 방문, 정운영 군수로부터

여객선 이용주인에게 여객선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도서민 여객선운영 보조지원 확대와 생활용 해상수송비 도비지원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또 본격적인 봄철 관광성수기에 대비한 울릉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울릉 일주도로를 둘러싼 주민들의 숙원인 국도 승격과 함께

를 지키는 경비대원들과 독도주인 김성도씨 부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도를 사랑하자"란 구호를 외치며 독도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현준 위원장은 "푸른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울릉도를 찾아온 관광객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 이는 울릉군이 관광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해 다양한 관광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울릉군의 관광자원 개

육(북해 농수산위원회)의 과목과 폭풍과 관련, 수입 80%이상되는 배합사료의 해 말 현재 1년 전에 비해 43%, 돼지사료가 32%, 산가 34%인상되는 등 양축 사육을 포기해야 할 정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합사료의 경우 80%이상을 있는 농협과 경북도가 협상 특별자금 지원방안을 짜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또 양질의 조사료 및 곡산화대를 위한 대책은

중 도지사는 농림부와 농업관에 사료안정기금 조성료 특별자금 지원을 통한 가격안정 등을 건의해 둔

한참에 대규모 친환경 3단지 100ha를 조성하고, 산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을 9천400ha까지 확대

정적인 축산기반 구축과 등에 적극대처 하겠다. 이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점으로 러시아, 남미, 아메리카를 기지 건설

학(김천 통상문화위원회)이 이전 기관 총서자 가운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외에 문제점으로 나타나



박노국 의원

박정학 의원

장병익 의원

이같이 공공기관 총서자들이 이주를 꺼리는 것은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 및 주거환경 때문이다. 이들을 적극 유인할 다양한 주택·교육·의료서비스·문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야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함한 지방분권정책의 성공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의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실현돼야 한다. 대책은

▲김관용 도지사=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입주시기와 연계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설립,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교육특구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형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학교 설립, 김천대학 4년제 전환, 수도권 재정학숙 무료인소와 성적 우수자에 대한 학비 및 장학금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거·의료·문화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원, 탁아소, 유치원 등 종합적인 보육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행복생활을 위한 주말농장 우선분양과 근린공원, 녹지대 및 산책로 등을 조성 여가활동을 지원하겠다.

△장병익(군위 건설소방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과 관련,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해 학습의욕 저하로 인한 이혼, 탈농현상이 급증, 점차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교육과정 정상운영의 어려움, 초등학교의 복식수업, 중등학교의 상치교사 수업 등이 늘어나 교육의 질이 점차로 뒤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방안은

▲조병인 교육감= 기존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0개 지역청에 한경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23개 전 지역청의 읍면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89억2천70만원을 투입해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특히 예산 지원 방법도 있어서도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각 지역교육청의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방법도 다양화하고, 2004년부터 지정·운영해오고 있는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양승복기자 yangs@kyungbuk.co.kr

경북매일신문 2008. 3. 13

저소득 주민 건보료 지원한다

경북도의회, 내달 14일 임시회서 '조례안' 심사

일간대구경북 2008. 3. 17

또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데 조례안 예산의 부담을 도와
지 않고 있다.

경북일보 2008. 3. 20



일간대구경북 2008. 3. 14

도의회 의정연구회, 세계화 도약 세미나

경북도의회 의정연구회
내에서 의원들은 "도의회
주어라들을 과감히 탈피하

경북도의회 의정연구회(회장 손진영)는 지난 13일 김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에서 회원(22명)과 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용의 시대' 지방 선진화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도의회 역할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의정세미나는 지속적인 의안개발과 산적해 있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정대안의 제시를 논의하는 한편,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자리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표방한 의정연구회

한수원 본사 유치 관련 도비 지원

박병훈 도의원 적극 노력 ...4억5천만원 확보

경주출신 박병훈 도의원이 한수원 본사 유치와 관련 유치설명회와 함께 지역문화와 상호교류협력 탐방체험행사를 위한 도비 4억5천만원을 유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경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천시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16개 사업에 대해 도비 수십억을 신청한 것에 착안해 한수원 본사가 유치된 경주시에 관련 예산이 한 톨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개월여에 걸친 노력 끝에 3년간 4억5천만

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예산을 향후 한수원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의 지역문화 탐방 체험행사나 이전 기업과 지역 혁신 주체간의 상호교류협력 행사,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 설명회 개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예산은 올해 1억5천만원이 배정되고 2009년, 2010년 각각 1억5천만원이 지원되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민간 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경주실정과 예산현실을 감안, 한수원 본사 유치

영남일보 2008. 3. 22

경북매일신문 2008. 3. 19

이상천 경북도의회장, 적십자 특별회비 기탁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실 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안운식 회장에게 200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하고, 적십자 특별회원증을 전달 받았다.

이 의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미있는 적십자 사업에 도민들의 작은 관심이라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안창환기자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이 1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안운식 회장에게 200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한 후 특별회원증을 받고 있다.



'5천만불 포함 투자' 지멘스사 MOU 체결

경북도와 포항시는 21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첨단료 기기와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독일 지멘스사와 5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정호 포항시의회 부의장, 박승호 포항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가운데), 크라우스 피터스 한국 지멘스사 부사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1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첨단료 기기와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독일 지멘스사와 5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정호 포항시의회 부의장, 박승호 포항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가운데), 크라우스 피터스 한국 지멘스사 부사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5월 축제

꽃내음 물씬 봄꽃 여행

추천 여행지

봄의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지 않는다면 꽃보라 날리는
경북의 봄 세상속으로 발길을 옮겨보세요.

안동

농업과 꽃들의 만남 5.2~5.6(5일간)

꽃 및 농산물, 농기자재 전시, 체험행사, 야생화 판매 등

영주

사과꽃따기 체험 5.4

사과꽃따기 체험행사 등

소백산철쭉제 5.30~6.1(3일간)

철쭉꽃길 걷기, 장승깨기
음악공연, 죽령옛길달빛걷기

문경

참사발축제 5.3~5.12(10일간)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

의성

신평호바리축제 5.24

물고기잡기체험, 왜가리작품전 등

영양

웰빙영양일월산산나물한마당

5.16~5.18(3일간)

산나물 및 특산물판매, 산나물요리전시

칠곡

아카시아벌꿀 축제 5.5~5.8(4일간)

지역특산물 소개, 아카시아산업 홍보, 관광문화 행사

가족체험 테마여행지



자녀에게는 생생한 현장 학습, 부모에게는 답답한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어린이입니다.

'우주 정거장이 보여요'

(우주의 신비와 별빛여행)

영천 보현산천문대, 예천 천문과학문화센터,
영주 소백산천문대, 영양 반딧불이천문대

야생화를 찾아떠나는 여행

성주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영양 일월산자생화공원,
경상북도수목원 야생화단지, 안동 맥설자생식물원,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 야생화단지

전통사찰 탐방과 체험 프로그램

연내 석가탄신일 하루만 개방하는 수도 사찰 탐방
템플스테이 사찰 및 프로그램 안내



우리나라에도 이런곳이...

이국적 풍력발전단지(영덕)

가족과 함께하는 레포츠 여행

경주 가족과 떠나는 자전거 여행, 문경 철로자전거,
MTB 자전거 트래킹, 클레이 사격, 강·바다낚시



동해바다 독도랑



독도 나래 (맹이갈매기)



홍대장
(독도의 용수비대장 홍순철)



독도랑
(기본형 캐릭터)



아라
(강치)



태장군
(신라장군 이사부)

안장군
(민간외교관 안용복)

독도랑 캐릭터는 독도의 91개 바위섬 중 동도와 서도를 남과 여로 의인화하여 친근하게 표현하였다. 서도는 녹색계열 색을 사용하여 남성적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명랑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다. 동도는 노란색계열 색상을 사용하여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독도에 자생하는 왕해국(국화꽃종류)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